

작품 내용

제 목	내 창가에 내린 노을
내 용	해질녘 창문을 열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 내 작은 방 한 구석 공간에 올려두었다 어느 날 낮선 이의 담벼락에서 내가 찍은 그날의 노을을 보았다 숨결도, 기억도 없는 메마른 복사본으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그리도 차가운 벽이었을까 마음의 조각을 도둑맞은 듯 가슴이 시렸다 창작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아껴주는 작은 마음에 있음을